

LG상사, 매출증가 불구 순이익 감소

매출액 28.4% 증가에 영업이익 8.7% 증가 ... 석유화학제품 가격 급등

LG상사가 2004년 1/4분기에 매출 1조5581억원, 영업이익 501억원, 경상이익 430억원, 당기순이익 30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4월27일 발표했다.

2003년 1/4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은 28.4%, 영업이익은 8.7% 각각 증가한 반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8.3%와 8.8% 각각 감소한 실적이다.

LG상사는 장기간의 국내외 경제침체 속에서도 에너지·물자, 산업재 및 IT 부문의 팔목할만한 성장에 힘입어 좋은 실적을 올렸으며,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,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급등, 석탄 장기공급에 따른 수익증가 등으로 패션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.

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내수침체에 따른 패션부문의 이익감소, LG유통 및 LG에너지 등의 지분법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2003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.

LG상사의 경영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03.Q1	2003.Q4	2004.Q1	전년동기대비	전기대비
매출액	12,139	15,349	15,581	28.4	1.5
영업이익	461	473	501	8.7	5.9
경상이익	469	379	430	▽8.3	13.5
당기순이익	330	229	301	▽8.8	31.4

LG상사는 2004년 3월 말 기준 회사채 잔액은 1300억원으로 2003년 말보다 300억원 감소했으며, 5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00억원도 모두 갚을 예정이어서 2004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99%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.

또 튼튼한 재무구조를 토대로 경영실적 호조세를 이어가 2004년 매출 5조6030억원, 영업이익 1600억원, 경상이익 1650억원, 당기순이익 115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.

LG상사는 4월 들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20%를 넘어섰으며,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기업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4/28>